

신체상,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유 안 진(서울대 교수) · 이 점 숙(서울대 강사) · 김 정 민(서울대 박사과정)

자신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에는 개인의 내적인 특성 뿐 아니라 외적인 요소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된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청소년기의 경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은 자신에 대한 만족감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황들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 청소년기 특성을 고려할 때, 개인의 탄력성 역시 전반적인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적 특성 이외에, 청소년들의 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부모 및 또래와의 관계는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신체상, 부모 및 또래에 대한 애착, 탄력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청소년들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해보고자, 서울 및 경기도의 중학생 932명(남학생 386명, 여학생 545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 탄력성과 생활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 검증,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좀더 긍정적인 신체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생활에 대해 좀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또래에 대해서는 좀더 낮은 애착을 보였다.

둘째, 청소년의 성별, 신체상, 아버지와 또래에 대한 애착,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신체상, 아버지에 대한 애착, 탄력성 순으로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성별, 신체상, 어머니와 또래에 대한 애착,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신체상, 탄력성, 어머니에 대한 애착 순으로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들의 생활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와 개인이 가진 탄력성 역시 생활만족과 관련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